

법 어

염천(炎天)의 날씨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 만해마을은 설악에서 발원하여 백담사 앞을 굽이쳐온 북천(北川)이, 한 여름의 더위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계곡의 청량함을 머금은 바람이 잠시 무더위를 잊게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만해스님을 기리는 축전을 열고 있습니다. 만해스님은 수행자이자 위대한 시인이었고, 독립 운동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제국주의에 온 몸으로 저항했지만 만해의 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비폭력, 평화주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을 통해 민족을 계몽하는가 하면, 전국의 사찰을 돌며 불교의 혁신과 민족적 역할을 일깨우는데 힘을 쏟으셨습니다.

올해 만해대상 역시 이와 같은 만해스님의 사상에 따라 수상자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상하시는 분들은 곧 정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핍박받은 이들과 함께 하며, 문학과 예술의 구현을 통해 세상에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온 현시대의 선구자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 구석구석에서 이와 같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 그 공적을 치하할 수 있는 것은 상을 받은 분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모시게 된 우리 모두의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해스님의 사상과 실천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우리 삶의 공로자들이십니다. 현대인들에게 참다운 삶의 가치와 지혜를 전달하여 진정한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곧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시대의 책무자라는 서원으로, 어려운 이들의 벗이 되고 항상 따스하게 대하는 사섭법(四攝法)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만해스님은 ‘여름밤이 길어요’ 라는 시에서 ‘당신이 계실 때는 겨울밤이 짧더니, 당신이 가신 후에는 여름밤이 길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은 슬픈 음악이 되고, 아득한 사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만해 스님이 말씀하신 ‘당신’ 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시는 분이며, 비옥한 옥토가 가득한 희망으로 안내하는 자비의 실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당신’ 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만해대상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긴 겨울밤을 짧게 만드시는 ‘당신’ 들입니다. 세계의 평화와 인류를 위한 헌신,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 만해의 화신들이십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뜻 깊은 오늘을 함께하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8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